

인간의 성에 대한 성경신학적 기초 연구위원회 보고서

(Executive Summary of the Report of the Committee to Articulate
a Foundation-laying Biblical Theology of Human Sexuality)

I. 서문

창조주의 선물인 성은 우리를 타인에게로 이끌어주며 우리에게 큰 육체적 기쁨을 준다. 또한, 성적행위는 영과 육을 가진 인간에게 영적으로 중요하고 정서적으로도 중요하다. 비록 하나님께서 여자와 남자를 서로에게 끌리도록 창조하셨지만 타락한 인간은 서로에 대하여 끊임없이 성적인 죄를 범하여 수치, 분노, 상처, 외로움을 경험한다. 최근 수 십 년간 성적 도덕관념의 급격한 변화 때문에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성에 대해 의문을 갖고, 순결을 지키며 독신으로 사는 것이나 평생 한 배우자와 결혼을 하며 살라고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낡고 기이하게 생각한다. 비극적이게도 교회는 이런 질문에 대해 가혹한 판단으로 응답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이 빈번하며, 동시에 우리를 둘러싼 주변 문화의 성적 흐름에 편승한다.

이런 질문과 성적인 혼란, 깊은 외로움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디자인하신 친밀한 인간 공동체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를 갖고 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형제자매가 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며 우리 육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보통의 공동체에서 우리는 자신의 약점을 드러낼 만큼 진실되이 서로를 신뢰할 수 있고, 가능한 타인을 돌볼 수 있다. 우리는 끊임없이 전자 기기를 사용하느라 우리의 몸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우리는 같은 인간인 형제자매들과 함께 먹고 놀기도 하고 정서적으로 감동을 받는 등 신체적인 유대가 필요하다. 우리 육신의 공동체는 신자들의 죄와 부끄러움, 슬픔, 외로움을 치유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회의적이고 호기심 많은 불신자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도 존재한다. 북미주 개혁신교회에는 성경에 대한 깊은 애착을 갖는 산 전통이 있으며 우리는 시대 정신에 용감히 맞설 의지를 갖고 있다.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를 알고 모든 것을 화목케 하시는 화해자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성적 정체성, 깊은 깨어짐, 오래 반복되는 죄의 문제, 문화적 변화의 혼란과 씨름하는 사람들을 위한 돌봄의 공간을 만들 수 있다. 우리의 평화이신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으며 우리는 교회 안과 밖에서 끊임없이 씨름하는 사람들에게 안전한 항구를 제공할 수 있다.

II. 인간의 성에 대한 성경 신학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성경 신학의 틀은 바리새인의 이혼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이 하신 대답에서 찾을 수 있다. (마 19). 예수님은 **창조**를 거론하여 결혼을 “태초부터” 있었던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사람들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구약에서 이혼을 허용한 것이라고 **타락을** 언급하셨으며, 예수님 자신의 권위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 하시며 결혼 생활을 위한 **구속**의 방법을 말씀하셨다. 이것은 성관계를 결혼 안에서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제한하는 인간의 성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논의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 따라서, 이 보고서 또한 “창조: 창세기 1-2,” “타락: 창세기 3,” 그리고 구약과 신약에 드러난 “구속”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구속에 관한 논의는 지금까지 가장 길며 성경 전체의 최악되고 타락한 성관계에 반대되는 선하고 경건한 성관계에 관한 가르침을 제시하는 부분을 연구한 것을 포함한다.

우리는 창세기 1-2 장의 창조 이야기를 통해 인간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고,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존재의 필수적이라는 것을 배운다. 하와가 아담에게 적합한 돕는 자로 지어졌다는 구절은 남성과 여성 간의 평등과 보완을 모두 암시한다. 남성과 여성이 결혼으로 “한 몸”이 되어 잠재적으로 후손을 낼 수 있다는 것은 명확히 선한 것으로 기념되고 선언되는 일이다. 신약은 이렇게 남편과 아내 간의 한 몸이 되는 연합으로써의 결혼에 대한 근본적인 묘사를 반복적으로 확증한다. 창세기 3 장의 타락 이야기는 별거벗은 것이 수치가 될 때, 억압적인 성과 결혼을 위한 창조의 질서가 부패하는지를 보여주며, 억압적인 가부장제가 결혼의 하나됨의 자리를 차지하고, 아이를 잉태하는 것은 출산의 극심한 고통을 동반함을 보여준다.

나머지 성경 이야기는 어떻게 이런 선한 창조와 부패한 타락의 주제들이 구속의 전체적인 내러티브를 구성하는지 보여준다. 예를 들면, 구약의 율법서는 어떻게 번성(fruitfulness)과 구원이 함께 긍정적으로 작용하는지 그러나 성과 결혼이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에서 어떻게 부정적으로 간음, 동성애 관계, 이혼, 일부다처제 등 다양하게 벗어나는지 드러낸다. 예언서는 결혼을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언약 관계의 비유로서 인간의 성의 중요성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강조한다. 그에 따라 종종 우상숭배를 간음 혹은 매춘에 비교하기도 한다. 이스라엘의 지혜서는 이와 비슷하게 간음과 매춘의 악함 (잠언)과 건강한 성적관계의 아름다움과 기쁨 (아가서)을 묘사한다. 아가서가 전통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예언적 우화로 해석되어 왔다는 것 또한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순결한 독신의 가치가 처음으로 강조되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수님은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 된 (마 19:12)”사람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씀하셔서 구약의 성전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품으셨다. 비혼을 선택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예를 본받아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는 종말론적 미래를 기대한다 (눅 20:35). 결혼을 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7절에서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라고 말한다. 바울이 말하는 “은사”는 독신의 은사 보다는 절제의 은사, 즉 배우자에게 충실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한 은사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또한, 바울은 기혼 신자들은 독신 신자처럼 하나님 나라 일에 집중할 수 없다는 것도 지적한다 (고전 7:32-33).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결혼상태나 다른 어떤 사회적 지위에 달려 있지 않다.

구약 성경과 비교하여 신약 성경은 또한 결혼관계 유대의 구속력을 매우 강조한다. 예수님은 결혼의 영구성을 단호하게 강조하셨다. “성적 부도덕을 제외한다”는 마태복음 19장 9절 조차도 이혼의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 규범이 갖는 구속력을 다시금 천명하는 것이다.

나아가 예수님은 성적 부도덕의 외적 행동을 반대할 뿐 아니라 성적 부도덕의 내적 부패 또한 반대하며 경고하신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마 5:28)”는 구절은 여성에게 단순히 끌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음탕한 의도를 가지고 여성을 보는 것을 의미한다. 요약하자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의도하신 대로 신자들에게 결혼을 위해 성관계를 유보하라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성과 결혼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욱 강화한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따르지 말고 (살전 4:3-5)” 라고 바울은 기록한다. 성적 순결함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차별화된 표징이다. 이는 기독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따라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된 예루살렘 공회의 규례 중의 “음행을 멀리하고 (행 15:20)” 와도 궤를 같이 한다. 성적인 죄를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의 표시다. 그의 다른 서신에서 바울은 성적 부도덕의 죄를 범한 남자를 쫓아낼 것을 촉구한다 (고전 5). 고린도전서 6장 12-20절에서 바울은 육체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성적 자유를 가질 수 있다는 몇몇 고린도인의 주장에 하는 반박한다. 바울은 부활할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성찬을 할 것이기 때문에 몸이 중요하며 성적 부도덕은 이러한 실재와 양립할 수 없다고 응답한다.

한 편, 바울은 결혼의 중요성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예수님보다 한 발 더 나아갔고

구약보다도 더 나아갔다. 이는 바울이 남편과 아내에게 주는 지침인 에베소서 5장 22-23절에서 반복적으로 결혼의 모델로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언급하는 것에서 발견할 수 있다.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남편의 아내에 대한 사랑의 모델로서 말할 때, 바울은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엡 5:30-32)” 라고 기록한다.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기본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해 특별히 조명되고 풍성해진다. 남편과 아내가 한 육체가 되는 것을 입증하는 창조의 제도로서의 결혼은 신비 혹은 비밀을 담고 있다. 이 신비는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의 연합 안에서 밝혀졌다. 그러므로 결혼은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의 영적 연합을 반영할 때만 그 가장 깊은 의미가 온전히 이해될 수 있고 성취될 수 있다. 바울이 성경의 다른 곳에서 사용한 것과 더불어 “비밀”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이전에는 알지 못했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것을 뜻한다.

이는 성과 결혼의 성경적 신학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진리다. 하나님은 그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은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궁극적 목적을 위해 지어졌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성은 이 연합을 반영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결혼 그 자체는 지나갈 것이지만 그 궁극적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와 가족 가운데 영원할 것이다. 누구든지 이 궁극적 실재를 누리기 위해 이 생애에서 결혼을 해야 할 필요는 없다.

III. 과학과 일반 계시

위원회의 임무는 인간의 성에 관한 성경적 증거만을 고려하라는 촉구가 아니라 이와 관련된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연구로부터 나온 결론”도 염두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6 총회회의록 920 쪽). 여기서 성경과 과학의 관계에 관한 질문이 발생한다.

벨직 신앙고백 제 2 조가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듯이 하나님은 그 자신을 두 가지 방식, 즉, 기록된 말씀과 창조를 통해 드러내신다. 비록 하나님에 관한 이 두 가지 계시, 일반계시와 특별계시는 반드시 상호 보완적으로 읽어야 한다. 특별 계시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되기 때문에 인지적으로 우선 된다. 존 칼빈이 제시한 훌륭한 비유처럼, 우리는 성경의 특별 계시가 창조라는 텍스트를 제대로 읽게 해주는 안경과 같이 기능한다고 말할 수 있다. 과학은 일반 계시를 보여줄 수 있는 창조라는 데이터와 현상에 대한 문화적인 응답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일반 계시 자체와 동일시되어서는 안 되고 따라서 성경과 동등한 신성한 권위를 갖지 않는다.

IV. 음란물

음란물(Pornography) 현대 북미주 문화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교회까지 침투해 있다. 대부분의 남성과 점점 더 많은 여성, 어린이들이 정기적으로 음란물을 접하거나 접했던 적이 있다. 2016 년 바나 연구는 대다수 목회자들이 이전 혹은 현재 음란물에 접속했다고 보고했으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 음란물 사용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그 중 소수는 음란물 사용을 중지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고 보고했다.

음란물이 새로운 것은 아닐지라도 현대 사회의 인터넷 음란물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 사람들은 단지 자극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음란물에서 만난 다른 사람들과 실제로 성관계를 맺는다.
- 사람들이 가장 자주 보는 온라인 음란물은 남성이 여성을 이용하는 것이며 이를 성적 학대 혹은 고문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표현이다.
- 인터넷 음란물은 조잡하고 경멸적인 인종적 고정관념을 강화한다.
- 현대의 음란물은 습관적인 접속자를 만들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 금융업이 다른 산업을 발전하게 하는 수십 억 달러의 산업인 것처럼 음란물이 우리 문화의 성적 관습, 정치, 법을 형성한다.
- 사실상 오늘날 모든 음란물은 촬영된 매춘이며 상업화된 성폭력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음란물 소비가 이제는 일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로인한 희생자도 많다.

- 매춘을 당하고, 음란물 산업에 의해서 폭력적으로 학대를 당하는 여성들
- 음란물의 폭력성에 길들여져서 실제로 폭력을 행하거나 받아들이게 되는 어린이들
- 당황하고 분노하며 상처받는 부모들과 가족들
- 배우자가 사실상 부정을 한 것과 같은 배신감을 느끼는 음란물 사용자들의 배우자들
- 뇌가 폭력이 주는 자극을 갈구하기 시작하는 음란물 사용자들
- 발기부전으로 고통받는 남성 음란물 사용자들
- 남성의 폭력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여성들과 성적으로 폭력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남성들

성경은 온라인 음란물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들의 육과 영에 해를 끼치고 성적 친밀감을 파괴하는 태도와 행동을 언급한다.

폭력성: 하나님은 폭력을 미워하시며 약자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미워하신다. (잠언 3:31, 시편 11:5, 이사야 59:1, 예레미야 22:3, 에스겔 8:17, 요한복음 3:8) 음란물을 사용할 때 우리는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에 참여하는 것이며 여러 연구에 의하면 우리 자신에 대해 폭력적인 경향이 생긴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착취: 우리에게 정의와 자비를 행하라고 하시며 도움이 필요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학대하는 것에 대해 끊임없이 경고하시면서 (미가 6:8, 잠언 22:22-23, 아모스 8:4) 하나님은 익명의 가난한자와 소외된 여성들을 성적으로 이용하는 대부분의 남성들의 착취 성향을 대적하신다.

인종차별주의: 음란물이 최악의 인종적 고정관념을 배양하고 인종에 따라 사람을 폄하하고 분열과 경멸을 조장하는 반면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인간들 사이의 적대적 관계를 화목케 하셨다. (갈라디아서 2:1-14, 에베소서 2:11-22, 골로새서 3:11)

성적 죄악: 음란물 사용을 통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영상 속의 사람들이 간음 혹은 성적 부도덕의 죄를 짓도록 만들게 된다. 만약 결혼한 상태라면 우리는 제 3의 성적 파트너를 결혼관계 안으로 끌어들이어서 친밀한 육체적 연합의 하나됨을 파괴하는 것이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마태복음 5:28)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도전적인 선포는 우리가 배우자가 아닌 누군가와 성적 행위를 상상하는 것조차 죄라는 뜻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과 결혼연약의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기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빛 되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정직하게 말하고 살아야 한다 (요한일서 1:7). 음란물 사용을 숨기는 것은 관계에 어두움을 가져온다.

구원받은 관계: 사람을 대상화하고 남성의 성적쾌락을 위한 여성이 준비하도록 부추기는 음란물이 팽배한 문화에 예수님은 창조 목적대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오셨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창조물을 다스리라고 세상에 보내신 것이다 (창세기 1:26-31). 예수님은 서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하신다 (마태복음 20:20-28, 마가복음 10:35-45). 하나님은 모든 신자들에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에베소서 5:21)”고 명하신다.

소아과 전문의, 정신과 의사, 정치인들이 음란물 사용을 건강의 위기로 보는 지금, 교회는 빛 가운데 사는 삶의 모델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구속의 빛 가운데서 우리는 음란물과

인신매매의 연관성을 직면할 수 있다 (음란물과 남성의 폭력의 피해를 입는 여성 및 여아의 숫자가 증가하는 것의 관계, 모든 연령의 음란물 사용자가 입는 피해와 사용자들의 배우자들이 입는 피해의 정도). 우리는 음란물이 성적 불평등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우리의 음란물 사용은 개인적인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교회로서 우리는 더 이상 이 문제를 사적인 것으로 방치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함께 할 수 있다.

- 어린이, 청소년, 성인들에게 건강한 성관계에 대해 아름답게 묘사한 아가서를 포함하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 걸쳐서 성에 관한 복음을 정기적으로 가르친다.
- 공적인 예배에서 우리의 음란물 사용을 인정하고 정기적으로 음란물 사용자와, 그 가족들, 그리고 음란물로 인하여 학대를 당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중간역할을 한다.
- 음란물에서 학대를 당한 사람들과 정죄하지 않는 태도로 함께 하며 돕는다. 부당한 수치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함께 애통하며 하나님의 돌보시는 사랑을 구한다.
- 음란물 사용자들의 부정으로 인해 배신당한 것과 같은 느낌을 받는 배우자들을 위로하고 장로들과 소그룹들이 음란물 사용자들을 만나도록 돕는다.
- 음란물 사용자들에게 치유에 대한 소망을 주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의 도움을 받게 하여 회개하고 그 죄에서 떠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 하나님이 자녀를 사랑하시듯 음란물을 접한 자녀를 사랑하도록 그리고 그 자녀들이 음란물의 영향에서 회복되도록 부모들을 돕는다.

V. 성 정체성 (Gender identity)

우리가 성 정체성의 문제를 연구할 때, 우리 위원회는 트랜스젠더, 생물학적 성불응자(gender nonconforming), 퀴어들과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는 퀴어신학을 포함하여 신학연구 자료들을 읽고, 퀴어이론을 비롯한 사회과학, 자연과학 신학 자료를 읽었다. 젠더 스터디는 새로운 분야이고 과학연구는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과학연구의 본체는 성과 관련된 다른 연구 분야와 비교할 때 더 적다. 성전환은 여러가지 의료 조치가 관련되고 그 중 많은 부분이 아직 실험 단계에 있다. 이와 동시에 성 정체성 혹은 성발달장애 (DSD)와 관련된 문제들을 깊이 연구한 신학자를 찾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복음에 충실하면서도 최대한 과학적으로 성 정체성 문제로 씨름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방향으로 교회가 성 정체성의 문제들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연구가 위의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비록 오늘날 섹스와 젠더는 서로 다르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이러한 이해는 비교적 낮설다. 1960 년대에 들어서야 사람들은 섹스 외에 젠더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섹스가 생물학적인 메이크업을 일컫는 반면, 젠더는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의되는 역할을 일컫는다. 그러나 이런 정의에도 이견이 많다. 이 보고서는 성적 정체성과 관련한 포괄적인 정의들을 제공한다. 우리는 이 용어들이 이런 용어들이 담으려고 하는 여러가지 조건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복잡하고 고통스러우며 어려운 것을 다 소화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또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섹스와 젠더에 관한 질문들은 우리가 사는 문화의 특정한 순간의 결과이다. 섹스와 젠더를 둘러싼 오랫동안 이어져 온 믿음과 삶의 양식이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에 의해 도전 받고 있다. 그 동안 건강, 교육, 사회 서비스는 타인 특히 여성의 안전과 복지에 반대하는 쪽으로 기운 사람의 요구에도 맞춰야 하는 복잡한 딜레마에 빠졌다.

신앙에서 공공정책에 이르기까지 나타나는 우리가 지금 목격하는 모든 변화들은 진공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변화들이 단순히 과학에 근거한 것도 아니다. 이 세상의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이 진리인지 알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하고 행동해야하는지에 관한 가설에 근거를 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식으로든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며 과학적인 입장에서 섹스, 젠더, 성적체성의 관계에 대해 대립되는 주장들과 합의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세계관에 대한 질문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정체성의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하는 것은 성별불쾌증(gender dysphoria)과 성발달장애(disorders of sexual development, DSD) 라는 두 가지 다른 경험에 대한 혼란이다. 후자 DSD 는 사람의 염색체, 생식선, 내부 그리고/혹은 외부 해부학적 성의 발달에서 비전형적인 선천성(생물학적으로 기반한) 발생이다. 이 조건은 불안감을 동반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성별불쾌증은 자신의 젠더를 생물학적 성과 동일선상에서 보지 않을 때 스트레스와 불안증에 의해 생기는 것이 특징이다.

성 정체성 문제의 한 측면은 실제로 무엇이 성별불쾌감을 일으키는지 과학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남성과 여성의 뇌의 차이에 관한 증거는 그 차이가 어떤 의미인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에 대한 어떠한 결정적인 증거도 제공하지 못한다. 트랜스젠더 혹은 성별불쾌증이라는 사람들의 신체적 성이 "뇌의 섹스"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전형적인" 남성과 여성의 특징을 구성하는 문화적 고정관념에 근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적 고정관념은 성경에서는 물론이고 뇌과학적 증거에 근거하지 않는다.

사실상 성경이 드러내 놓고 이런 문제에 대해 말하는 부분은 매우 적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정체성 및 성발달장애에 관한 문제에 대해 성경적 통찰력을 찾으려면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폭넓은 성경의 이야기에 의지해야 한다. 인간에 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대로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아주 좋다”고 선포하신 것을 확증한다.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모든 창조물과 더불어 인간은 이제 죄로 뒤틀렸다. 그러므로 죄로 타락한 인간에 관해 우리가 무엇을 살펴보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타락에 의해 왜곡될 수밖에 없다 (창 3:14-23).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은 인간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 심판 때에 완전히 회복될 것을 기다리며 지금은 우리가 이 회복의 일부를 경험한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육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믿는다. 비극적으로 타락 때문에 몇몇 사람들은 그들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 정체성과 그들의 생물학적 성 사이의 연결이 끊기는 것을 경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리를 하나님의 선한 목적의 징표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구체적인 목양의 방법은 경우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겠지만 일반적으로 목양은 자기 양떼를 먹이시고 상처입은 자들을 돌보시고 연약한자들을 보호하시며 어린아이를 품에 가까이 안으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길을 잃은 자를 데려오시고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모델을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목양에는 돌봄, 치유, 인도, 훈계, 훈련, 화해, 위로, 헌신적 돌봄, 지원이 따른다. 이를 위해서는 연락, 심방, 성경읽기, 기도, 경청,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단호한 태도,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이 필요하다. 성적불쾌증 및 성발달장애를 겪는 사람들을 위한 목양의 주된 목표는 하나님과 이웃들과 건강한 관계에 들어가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그 사람들이 마음과 뜻과 영과 힘을 가진 전인격적 존재로서 내면에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어야 한다.

VI. 동성애(Homosexuality)

북미주 개혁교회는 동성애에 관한 1973 총회 보고서에서 동성애의 지향과 활동의 중요한 차이를 밝혔다. “우리는 성적 지향성이 동성애적인 사람과 동성 상대와 직접 성행위를 하는 사람을 반드시 구별해야 한다 (1973 총회 회의록, 612-613 쪽)” 다시 말해서 동성에게 끌리는 것은 죄가 아니다. 우리가 성적으로 끌리는 대로 행동할 때 죄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교회 성도들이 성적 관계의 친밀감을 부인하는 것을 상상하지 못한다. 인간은 정말로 건강과 유연성을 위한 정기적인 인간의 터치와 친밀감과 강력한 사회적 관계를 필요로 한다. 우리는 모두 있는 모습 그대로 누군가가 알아주고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기를 갈망한다.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서로 돌보는 형제 자매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종류의 친밀한 공동체를

급진적으로 가르치시고 몸소 보여주셨다. 하지만 교회는 동성에게 끌리는 사람들이나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친밀한 공동체를 제공하지 못했다. 그 대신 혼전 성관계, 음란물 사용, 간음 등은 모른 척하면서 동성에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가 이러한 위선을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많고 돕는 공동체가 되지 않는 한 많은 사람들에게 동성애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반복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인지한다.

비록 동성애 행위에 관한 구약의 특정한 텍스트(창 19:1-19; 사 19:1-29; 레 18:22; 20:1)에 대한 해석과 적용에 관하여 논의가 계속되지만, 신약성경의 증거는 명확하고 일관성이 있으며 설득력이 있다.

예수님의 증언과 관련하여 수정 주의자들은 종종 이 주제에 관한 예수님의 침묵에 호소하여 “동성애 행위가 그렇게 나쁜 것이라면 왜 예수님은 그에 대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가?” 라는 주장을 펼친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주장이 사실상 얼마나 약한지 드러난다. 첫째, 고대사회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유대인의 문서는 통일성 있게 게이와 레즈비언 행위를 거절한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유대인으로서 이런 관점과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는 확률은 희박하다. 둘째, 예수님은 매춘, 근친상간, 남색, 수간과 같은 다른 성적 죄악에 관해 반대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침묵이 그러한 행위들에 관대했기 때문이라고 결론 짓는 사람은 없다. 셋째, 마가복음 7:21-23 에서 예수님은 사람을 부패하게 하는 것들을 열거하셨는데 그 목록 중의 제일 위에 있는 것이 복수로 말씀하신 “성적 부도덕들” 이다. 예수님은 구약을 잘 아는 랍비로서 동성애 관계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불법적인 성적관계를 비판하는 레위기 18 장과 20 장 등에서 금지한 여러 다른 성적 죄악을 언급하셨을 가능성이 높다 (레 18:22, 20:13). 넷째, 바리새인의 이혼에 관한 질문에 대답하실 때,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충분했을 법한 창세기 2:24 만 언급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1:27 도 언급하시면서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말씀을 잊지 못하였느냐” (마 19:4-5, 막 10:6-8) 라고 대답하셨다. 예수님이 대답하실 때 이 구약 말씀을 인용하셨다는 사실은 성별의 차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심)를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사실상 결혼을 남자와 여자 사이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셨다는 것을 드러낸다. 따라서, 예수님의 침묵에 호소하는 것은 보여지는 증거들과 대조된다.

사울의 증언과 관련해서는 동성애 행위가 명쾌하게 언급된 중요한 세 부분이 있다. 그 중 두 부분은 고린도전서 6:9 과 디모데전서 1:10 이다. 첫번째 부분은 헬라어 두 단어, **말라코이** 그리고 **아세노코이타이**를 사용하여 동성애 행위를 언급하고 있다. 몇몇 수정주의자들은 이 두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확신 있게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로 부터 동성애에 대한 어떤 결론도 도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더욱 진보적인 수정주의자들은 이 두 헬라어 단어가 좁은 의미에서

동성애 행위 중의 **학대적인** 형태, 즉, 성인 남성과 소년 간의 관계 (남색) 및 매춘을 뜻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관점에 의하면 사울은 그의 시대에 흔하게 있었던 이런 특정한 종류의 동성애 행위의 착취적인 특성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부분인 디모데전서 1:10 또한 아세노코이타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9 과 디모데전서 1:10 이 오늘날 현대에서 볼 수 있는 쌍방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일부 일처제의 동성 관계를 비판하는데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해석에는 최소한 세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다. 첫째, 만약 바울이 남색과 같은 착취적인 동성애 관계만을 문제 삼았다면, 헬라어의 여러 단어들 중에서 구체적으로 성인 남성과 소년의 관계를 지칭하는 한 단어를 사용했을 것이다. 그 단어들이 그 당시에 모두 흔하게 알려지고 사용된 단어들이었음에도 바울이 그 중 어떤 단어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 학대적인 형태의 동성애 행위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의 동성애 행위를 모두 염두에 두었음을 뜻한다.

둘째, 바울이 고린도전서 6:9 과 디모데전서 1:10 에서 **아세노코이타**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레위기 18:22 과 20:13 에 대한 암시가 있다. 표준 헬라어 학술 용어 사전은 이 단어를 "동성의 상대와 성적 행위를 하는 남성 (<신약성경의 헬라어-영어 어휘 사전> 시카고 대학 출판사, 135 쪽)"이라고 정의한다. 레위기의 두 부분에서 남색과 매춘 같은 착취 형태만이 아니라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이라고 명시한 레 20:13 참조) 모든 종류의 동성애 행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어떤 식으로든지 두 남성 간의 성행위를 금지하는 모세의 율법을 고려하여 이 단어를 사용한 것임을 보여준다. 사실 아세노코이타를 언급하기 바로 전에 바울은 디모데전서 1:8-9 에서 "율법"을 두 번이나 언급하며 동성간의 성관계를 포괄적인 금지한 구약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셋째, 고린도전서 6:9 에서 말라코스와 아세노코이타를 묶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 말라코스는 다른 남성들이 자신을 범하도록 스스로 허용한 남성들을 의미하고, 아세노코이타는 다른 남성을 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대해 폭넓은 동의가 있다. 이러한 합의는 이 구절에 대해 정확하게 같은 해석을 보여주는 NIV2011 년 버전과 ESV 번역에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맺는 남성들이라는 헬라어 번역은 동성애 행위에 수동적, 적극적 참여하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라고 잘 반영되어 있다. 이 두 단어를 묶음으로써 바울은 좁은 의미에서 남색 혹은 매춘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폭넓게 어떤 동성 관계에서든 수동적 그리고 적극적 참여자들을 가리키고 있다.

바울 서신에서 동성애를 언급하는 세 번째 텍스트는 로마서 1:24-27 이며 이는 길이적인 측면에서나 게이와 레즈비언 행위에 대한 직접적 언급 및 주장을 담고 있다는 측면에서 세 가지 텍스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수정주의자들은 사도 바울이 모든 형태의 동성애 행위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친 욕망과 절제의 부족으로 특징지어지는 특정한 형태의 동성애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통 주장한다. 이성애자 여성은 성욕, 즉, 음욕으로 가득차서 다른 여성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이고 이와 비슷하게 이성애자 남성도 음욕으로 가득차서 다른 남성과 성적 관계를 맺는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문제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정도 (지나친 욕망)가 아니라 잘못된 **대상**과 관련이 있다. 로마서 1:19-23 의 나오는 구절들은 우상숭배의 죄를 다루고 여기서 바울의 주장은 (마치 적당한 우상숭배는 괜찮고 지나친 우상숭배는 옳지 않다는 식의) 정도와 관련이 없고 대상을 문제 삼는다. 사람들이 창조주가 아니라 무언가를 만들어서 그것을 예배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이처럼 1:24-27 에서 논의되는 레즈비언과 게이의 성적 죄악 또한 정도 (동성간의 성관계에 대한 적당한 욕망은 괜찮지만 지나친 욕망 혹은 음욕은 잘못된다는 생각)와 관련이 없고 대상을 문제라고 본다. 여성이 남성이 아닌 여성과 성관계를 맺고 역으로 남성이 여성이 아닌 남성과 성관계를 맺는 것이다.

더 나아가 수정주의자들의 해석은 다음의 구절에서 바울의 핵심 주장과 반대된다. 동성애 행위가 잘못된 것은 남성과 여성 관계라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기 때문이다. “역리” 라는 단어는 동성애 행위가 이성을 향한 자연스러운 욕망에 반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에 세우신 남자와 여자를 향한 디자인인 **창조된** 본질에 어긋난다는 의미이다. 사실 바울이 창세기의 창조 내러티브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은 로마서 1:24-27 에서 그의 여러가지 암시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바울의 주장은 명쾌하다. 여성과 다른 여성간의 혹은 남성과 다른 남성간의 성적 행위는 “순리에 어긋나며” 잘못된 것이고 그 이유는 그러한 행위가 인간의 **창조된** 본질에 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관련된 성경 연구는 성경이 명쾌하고 일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어떤 종류의 동성애 행위든지 모두 죄이며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동성간의 성행위에 관한 토의는 성경적 증거에 대한 두 가지 동등하게 유효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비록 다양한 수정주의자들의 주장이 있지만 그 중 어떤 것도 설득력을 갖지 못하고 스스로를 진보적인 학자라고 칭하는 사람들조차 “억지스럽고 역사에 없는” 해석이라고 보는 것을 염두에 두고 판단해야한다. 또한, “기이한 속임수”의 증거는 성경을 다시 읽는 시도를 동반한다.

성경의 동성애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금지는 이와 동일하게 성적 죄악과 씨름하는 모든 사람들의 짐을 나누어 지고 그들을 사랑하며 공감하라는 명확한 권고를 수반한다. 북미주 개혁신교회를 포함하여 교회는 형제 자매들을 동등하고 귀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쉽게 배척하고 피하거나 무시해 왔기 때문에 동성애에 관한 교회의 반응은 죄고백부터 시작해야 한다. 교회는 성적 경향이 바뀔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를 선전하는 위험과 동성애 경향과 동성애 행위간의 중요한 차이를 구별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면서 인간의 성에 관해 선한 가르침을 계속해야 한다.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로서 성적 거룩의 길을 함께 걷기 위해 이성애자와 동성애자든지 동일하게 모든 멤버를 구비시킨다는 것을 동성에게 성적으로 끌리는 사람들에게 여러가지 구체적인 방식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VII. 독신, 혼전 성관계 및 동거, 일부다처, 이혼에 관한 고찰

A. 독신 (Singleness)

교회 역사의 많은 부분, 특히 첫 수 세기 동안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크게 존경을 받았다. 독신을 독려하고 유효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들은 부활 이후의 결혼이 끝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마 22:29-32),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사람들에게 대한 예수님의 언급과 (마 19:12), 바울의 확증 및 심지어 그의 독신에 대한 주장을 언급하였다 (고전 7:25-35). 특히, 고린도전서 7장에 근거하면 초대교회는 결혼한 사람들은 주님을 향한 마음이 나뉘게 된다고 보았다. 이와 대조적으로 독신은 "세상 일"에 덜 구애 받고 "주의 일"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오늘날 교회는 결혼과 가족에 대한 지나친 강조가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들을 소외시켜왔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교회는 덕의 문제로, 특히 음욕과 순결을 대조하는 것을 통해 이 중요한 화두에 접근함으로써 성과 독신의 영역에 도움되는 가르침을 제공해야 한다. 순결의 덕은 하나님과 이웃의 관계를 더 풍성하게 하는 결과를 낳는 방식으로 성을 사용하는 데에 반해 음욕의 악함은 성관계를 자기 자신에 대한 것, 자신의 쾌락에 관한 것으로 만든다는 데에 있다.

B. 혼전 성관계 및 동거 (Premarital sex and cohabitation)

쉬운 성관계가 매우 흔하고 혼전 성관계는 연애 과정의 일부로 여겨지는 현대 북미주 문화에서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성적으로 이미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에서 결혼을 고려하고 또 먼저 동거를 해 보지 않고서는 결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와 비슷하게 이혼하거나 사별해서 혼자 된 나이든 세대 또한 연애 관계에서 성관계를 하는 것을 선택하여 이제는 성적 친밀함에

익숙하다. 혼전 성관계와 동거는 넓은 의미에서 세상문화일 뿐 아니라 점점 더 교회에서도 규범이 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런 대중적인 행태와 너무 상이하게도 성경은 성이 남자와 여자 사이의 배타적인 친밀한 유대를 형성하고, 이 아름다운 선물은 결혼 안에서 유효하고 오직 결혼 안에서만 주어지며,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결혼 밖에서 거룩함과 기쁨을 얻을 수 없다고 가르친다.

C. 일부다처 (Polyamory)

일부다처(Polyamory, 다자간 연애)는 세 명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끼리 서로 합의 하에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다양한 형태로 발달해 온 다자간 관계 내에는 헌신 및 배타성의 정도가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러한 다자간 연애관계는 그들 그룹의 구성원들 안에서의 성적인 활동을 기대한다. 모든 다자간 연애 관계의 가장 큰 공통점은 서로 기대하는 바와 모두가 동의하는 기본원칙을 세우는 데 있어 공개적으로 말하며 정직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다자간 연애라는 개념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상하고 당황스러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자간 연애관계는 넓은 문화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빠르게 보편화 되어 가고 있다.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다자간 연애 행태를 옹호하기 위해 내 놓는 여러가지 다양한 주장들이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성경 학자들과 교회의 리더들 간에 그 중 어떤 주장도 적절한 성적 관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충실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데 크게 동의한다.

D. 이혼 (Divorce)

1980 년 북미주 개혁신교회 총회는 이혼과 재혼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받았다. 위원회가 인간의 성에 관한 문제를 광범위하게 다루면서 우리는 교회가 그 보고서의 가르침을 회복하고 이혼과 재혼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 서로 책임을 져야한다고 촉구한다. 북미주 개혁신교회는 결혼한 부부가 관계의 화목과 결혼 언약에 대한 재차 헌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능동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VIII. 성적욕구: 아가서에서의 몸, 유대감, 경계

아가서는 성적 사랑의 강도, 열망, 기쁨, 쾌락을 자극하면서 성적 친밀함에 대한 창조주의 의도를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아가서는

- 창조와 구속의 신학에 기반한 몸의 신학을 회복하도록 돕는다.
-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을 때 사랑받고자 하는 강력한 열망을 언급한다.
- 사랑받는 자의 독특함과 가치에 초점을 맞춘다.
- 여성과 남성의 연인관계의 평등함을 강조한다.
- 성적 사랑의 열정적인 배타성을 묘사한다.
-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노래한다.

IX. 신앙 고백의 입장 (Confessional status)

우리 위원회는 “여하튼 이 연구에서 밝힌 동성애 행위와 기타 이슈에 관해서는 ... 미래의 총회가 참고하도록 ... **신앙고백의 입장을 따름**을 선언한다.” (2016 총회회의록, 920 쪽)
신앙고백적 입장, 고백적 지위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몇몇의 가르침이든지 혹은 종말론적인 관습이든지 채택될 경우 교회의 고백의 가르침에 반하는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이 음란물 사용이나 혼전 성관계, 혼외 성관계 혹은 동성애 행위가 용납되는 일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신앙고백에 반하는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08 조, 제 7 계명 (“간음하지 말라”)의 의미가 “하나님은 모든 부정을 책망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부정을 혐오하며 결혼 안팎에서 반듯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 요리문답이 “부정”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동성애 행위를 포함한 모든 성적 부도덕을 포괄하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작성한 사람들 중 하나인 울시누스는 108 조의 주석에서 이에 대하여 부정에 포함되는 첫째 되는 음욕은 “본성과 반하는 것이며 악마로부터 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의 첫 장과 로마서에서 말하는 음욕은 난교와 여성에 대한 성의 학대를 말한다” 라고 확증했다. 비록 직접적으로 요리문답에 나오지는 않지만 (자카리아스 울시누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주석, 1043 쪽) 울시누스는 부정에 근친상간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음란물, 다자간 연애, 그리고 모든 형태의 혼전, 혼외 성관계, 동성애 성관계는 요리문답에서 규탄하는 부정의 범주에 들어간다.

따라서 우리는 **혼전성관계, 혼외성관계, 간음, 일부다처, 음란물, 동성애 성관계**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이 이미 신앙고백을 따른다고 결론을 내린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선언을 할 필요가 없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죄들이 인간의 구원을 위협하기 때문에 이러한 입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결론 짓는다. 성경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성적 부도덕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으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격려하라고 교회로 부르신다. 사람들을 회개하라고 부르는데 실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구원에 대해 소망을 제시하는 교회는 가짜 교회와 같이 행동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로마 가톨릭 교회, 모든 분파의 정교회, 비서구 지역의 전세계 교회, 북미주와 유럽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대다수의 교회들을 포함하여 전세계의 대부분의 교회와 함께 서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실로 비서구권 교회는 서구 교회가 인간의 성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제시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이해할 수 없고 불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성적 부도덕에 대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지탱하는 것을 거절한다는 것은 북미주 개혁교회가 성경에서 이탈할 뿐 아니라 역사적 보편적 교회가 공유하는 신앙 고백으로 부터 멀어진다는 신호일 것이다.

인간의 성에 관한 성경신학적 기초 연구위원회

매리 리 보우마

찰스 킴

호세 라야스

파울라 실스

매리 스투어트 밴 리우웬 (선의의 비판자)

매리 밴덴버그

짐 밴더우드

제프 와이마 (공동 의장)

알 울터스 (공동 의장)